



**김은영**

- 1937. 5. 3    서울 종로 출생
- 1961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 1963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 1966         독일 다름슈타트공대 박사(고분자)
- 1967~199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장, 조정부장, 부원장
- 1976~1977   캐나다 워털루대학 객원교수
- 1993~199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1997~199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1989~2000   의용생체공학회, 막학회, 고분자학회, 생체재료학회 회장
- 1995~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
- 1999~ 현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 2000~ 현재   (주)우영 회장(CTO)

1979년부터 2년간 고분자학회 제 2대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학회의 재정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고분자하계대학, 고분자분석세미나 등 학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갖 출발한 고분자학회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한편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단(Akio Nakajima 회장)을 초청하여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제 1회 심포지엄을 1979년 KIST에서 개최하고 제 2회 심포지엄을 다음해 일본 경도대학에서 갖는 등 한·일 고분자학회간의 협력을 시작 및 활성화하였다.

1989년도 IUPAC 미니 심포지엄과 1996년도 IUPAC 본 심포지엄에서 각각 재정분과위원장과 조직위원장으로 훌륭한 대회를 마침으로써 한국고분자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바 있다. 현재도 동아시아 첨단 고분자 심포지엄(EASPAT) 한국 대표로서 한·중·일·러 4국간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1967년 KIST에 입소한 이래 많은 고분자 과학자를 KIST에 유치하여 한때는 Ph.D.가 60명이나 되는 큰 고분자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이 그룹이 고분자학회가 초창기에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산업계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여 학회 큰 행사마다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거나 상암상을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이외에도 고분자학회 회장을 위시하여 막학회, 의용생체공학회, 생체재료학회, 문화재 보존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계 지도자로서 학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하여 1999년도에는 5.16 민족상을, 2002년도에는 일본 고분자학회 국제상을 수상한 바 있다.